

삶이 환타지임을 알고 집착이 없을 때 '깨어 있는 삶, 관찰자적인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다'

월호 스님(쌍계사 승가대학 학장, 행불선원장)이 1년 만에 펴낸 신간 『삶은 환타지-월호 스님의 명쾌한 계승 이야기』가 민중사에서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간 1주일 만에 2쇄에 들어갈 정도로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책은 월호 스님이 시청자들의 열렬한 호응 속에 '삶은 환타지'라는 제목으로 불교TV에서 방영한 내용을 정리 보완한 것으로 출간되기 전부터 인구에 회자되었다.

월호 스님은 대중들이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경전교실, 시민강원 및 시민선방 등을 운영하는 한편 불교방송·불교TV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면서 사람들의 근심 걱정을 풀어주고 삶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 시대 대표적인 힐링 멘토다.

왜 삶이 환타지인가? 아니 왜 삶이 환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가? 일찍이 금강경에서도 삶이 환타지임을 밝혀놓았다.

일체유위법 一切有爲法 애착 있는 모든 것은 여몽환포영 如夢幻泡影 마치 꿈, 환타지, 물거품, 그림자 같고 여로역여전 如露亦如電 또한 이슬 같고 번갯불 같으니 응작여시관 應作如是觀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 지니라.

위 금강경 사구계는 <삶은 환타지>, 책 제목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월호 스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금강경 사구계에서 모든 존재는 몽(夢), 환(幻), 포(泡), 영(影), 로(露), 전(電)과 같다 하였는데, 이는 모든 존재의 공통된 특징, 즉 일시적으로 생겨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이 곧 환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도 환타지 같아서 일다가 사라지고, 늘 변화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애착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무시할 것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완전 연소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또한 삶이 환타지임을 알고 집착이 없을 때 '깨어 있는 삶, 바로 관찰자적인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월호 스님은 초기경전에도 금강경 사구계와 유사한 계승이 나와 있다고 하면서 법구경의 계승을 읊어주었다.

몸과 마음을 신기루처럼 물거품처럼 바라본다면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하리라.

월호 스님의 설명에 의하면, 몸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면 저승사자들이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 까 끌고 갈 수도 없다고 한다. 몸뚱이와 마음은 물거품과 같고 신기루처럼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월호 스님(쌍계사 승가대학 학장, 행불선원장)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애착을 갖고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하면 저승사자에게 끌려가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다. 일시적인 나다. 나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는 불교의 무아설(無我說)에 통달하면 끌려갈 일이 없다고 한다.

삶이 환타지임을 알면 바로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된다. 본문을 잠시 들여다보자.

"화는 지금까지 쌓아온 자기 공덕을 태워먹고, 앞길을 막는 업장이 됩니다. 화를 내면 더 크게 화 낼 일을 끌어들이는 슬픈 일, 안 좋은 일이 자주 생깁니다. 악행이 악행을 부르는 이 엄정한 이치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슬픔 없이 살려면 반드시 '성냄'을 부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냄을 어떻게 부수어야 하는가? 성내는 자기 가슴을 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가슴을 쳐서 성냄이 사라진다면 천 번인들 만 번인들 못 치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런데 사실 성냄을 부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에게는 손가락으로 코 만지듯 쉬운 일입니다.

무상! 사실은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존재는 변한다'는 것을 알면 성냄을 확실하게 부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 두 사람이 있는데, 성냄 일을 만들어서 A가 B에게 성을 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시간은 지나가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과 지금 내 옆의 사람은 다릅니다. 성질을 내고 받는 순간의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흐르는 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잖아요. 이미 다른 사람이 된 그에게 화풀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성질냈으니 내가 이 사람에게 앙갚음을 해야 하는데, 나에게 성질 낸 그 사람은 이미 사라져 버렸고 당한 사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제행무상의 법칙입니다. 모든 존재는 한 시도 머무르지 않고 변한다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근심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는 바가 없다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는 계승의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 <삶은 환타지> 본문 58~59쪽 중에서

이 책을 읽다보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참으로 신기하다. 우리네 삶이 고달픈 것은, 삶의 희로애락에 울고 웃으며 괴로워하며 안달복달하는 것은 삶이 환타지임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책을 통해 삶이 환타지임을 알면 괴로워할 것도 없고 화낼 일도 없어진다. 언제 어느 때나 대자유의 환희를 만끽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월호 스님은 지금까지 펴낸 11권의 책 중에서 이 책이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오롯이 외우기 쉽게 응축시켜 놓은 계승에 스토리텔링을 하고 현대적 교훈을 담아 놓아 당신이 읽으면서도 가슴이 뚫히듯하다. 먼 훗날 스님이 이생의 몸을 벗을 때 "다른 책은 몰라도 이 책만큼은 내 대비식에 함께해 달라"는 말씀만으로도 이 책에 대한 스님의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주제별로 엮어놓은 계승, 스토리텔링 읽는 재미가 쏠쏠!

이 책은 간결하고 아름다운 계승으로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고 있는 『법구경』을 중심으로 『보배경』, 『자애경』 등을 월호 스님이 그 특유의 유쾌 통쾌 상쾌한 필치로 펼쳐 놓은 주제별 계승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계승', '애착을 버리는 계승', '화를 다스리는 계승', '행복을 부르는 계승', '마음을 보는 계승' '성품에 관한 계승' 등 계승을 주제별로 편집, 무엇보다 계승 하나하나에 얽힌 일화를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마치 독자를 앞에 놓고 조근조근 이야기 하듯 전달하여 더욱 편안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아울러 주제별 계승에 담긴 현대적 교훈을 일깨워 재미와 의미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게 한다. 이 책을 즐겁게 읽으면서 '삶은 환타지'임을 깨닫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완전 연소하는 대자유의 삶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응축해 놓은 계승은 깨달음의 열쇠, 최고 전법의 길

"이 계승을 듣고 사리부드러는 곧바로 수다원교를 연습한다. 그리고 이내 출가하여 3주 만에 또다시 부처님의 계승을 듣고 아라한교를 연습한다. 단지 계승 한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것이지요. 이 외에도 계승 몇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오죽하면 '금강경'에서도 온 우주를 보배로 채워서 보시하는 공덕, 또는 갠지스 강의 모래보다 많은 목숨으로 보시한 공덕보다 계승 한 구절 전하는 공덕이 훨씬 크다고 하였겠습니까? 계승이야말로 깨달음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 머리말 중에서

위와 같이 부처님 당시에도 계승 한마디 듣고서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았고, 육조 혜능 대사도 금강경의 계승을 듣고 깨달았다.

계승의 송(頌) 자가 노래 '송' 자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 계승은 일종의 노래이다. 산문보다 노래를 외우기 쉽듯이 계승은 외우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쉬워서 초창기에는 주로 장로계, 장로니계 하는 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으로 전했다. 숫따니빠따, 법구경 등 초창기 경전들이 다 계승으로 전해진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계승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응축시켜 놓은 것으로 깨달음의 열쇠요, 최고의 전법의 길임을 잘 알 수 있다.

"온 세상을 보배로 채워서 주는 것보다 계승 하나 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 있다"고 강조하는 월호 스님의 말처럼 이 책에서 읽은 짙막한 계승 하나라도 잘 배우고 외워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기쁨을 누리게 것이다.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엇인들 될 수 없으랴! 의식의 지평을 넓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열어주는 책

"우리는 누구나 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처도 될 수 있고, 보살도 될 수 있고, 신도 될 수 있고, 인간도 될 수 있고, 축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무엇이 될 것이냐? 이것은 부처님이 택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신이 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가장 크게 확대시켜 주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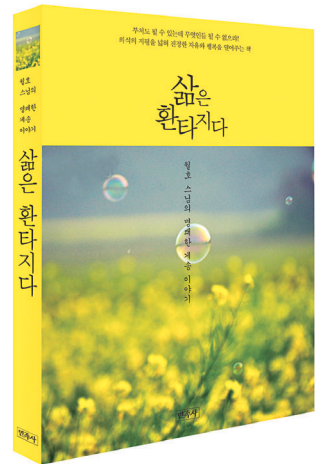
-본문 324쪽 중에서

불교는 누구나 온 우주의 진리를 깨친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종교이다. 이 책은 계승을 통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저성장시대에 점점 위축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

이 책의 제목처럼 '삶은 환타지'라는 것을 알면 작은 자아(小我)에 집착하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의 자유와 행복을 체득하게 된다. 작은 자아(小我)에 집착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애착하고 화가 나고 괴롭고 우울한 것이다. 작은 자아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바로 보면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 모두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요, 소중한 인생의 주인공임을 깨닫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엇인들 될 수 없겠는가.'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의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인간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열리는 데 이 책의 묘미가 있다.

월호 지음 | 민중사 펴냄
신국판 | 328쪽 | 값 13,500원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이 사람아!



불광산사 범종 (중량 6700관)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쳐서
흔을 담아야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주 부리면 끝이야! 끝!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 전시간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ong.com / E-MAIL : sungjongsong@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함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 112호 · 대한민국 명장)